

허경환 “지인에 배신당해 30억 빚...숨이 안쉬어져”

“닭 가슴살로 성공 가도 달렸지만, 집문서 들고 은행 간 적도”...슬럼프 고백



빚을 저 집문서를 들고 은행에 가야만 했던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허경환은 “통장이 몇십개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공장 사장님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맞춰보니 (동업자가) 회사돈으로 빚을 진 것을 알았다”며 “처음에 20억~30억원 되는 빚이 있을 때는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목을 막고 말을 못하게 하는 느낌이었다. 숨이 안 쉬어졌다”며 “당시 내가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었는데 청취자의 힘든 사연에 내가 노래 띄워드리면서 조언을 하더라. 노래 틀고 빚쟁이랑 통화했다. ‘돈을 안 갚으면 내일 압류 들어갈 거고 언론에 이야기한다고 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나아지는 건가 싶었다’고 했다.

연예계 생활을 접고 고향에 내려갈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를 믿고 끝까지 곁을 지켜 준 직원들, 그리고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고 품어주는 그의 가족들 덕분에 감명하기만 했던 그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다. 고마운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통이 커진다는 허경환은 직원들에게 영양제를 선물하고, 부모님과는 깜짝 데이트를 나서는 등 인성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

2020년, 40세가 된 허경환에게 마흔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한다. 81년생 동갑내기 친구 김원호, 김지호, 박성광, 박영진 그리고 허경환까지 다섯 명이 모여 결성한 중고신인 그룹 ‘마흔파이브’가 정말 마흔이 됐기 때문. 2009년 디지털 싱글 ‘있는데’로 한 차례 데뷔를 한 적이 있는 허경환이지만, 이번 마흔파이브의 ‘스물마흔살’ 활동은 더 애착이 간다는데, 스के줄 맞추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다섯 사람이 안무 연습부터 작사까지 직접 하며 마흔파이브 활동에 힘 쏟고 있었다.

“두 번째 스무살”을 맞아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허경환은 “TV에 나왔을 때 미소 지어지는 사람, 잠시나마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아이디어를 얻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방송 스케줄만으로도 바쁘지만, 회사에도 열정을 쏟아 사업성과 보고를 받고, 제품 개발 및 시식도 하는 등 실무를 하고 있다. 연 매출 180억 원, 소비자만족도 3년 연속 1위 등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며 성공 가도를 달리는 중이지만, 한때는 함께 동업하던 친구의 배신으로 20억~30억 원의

개그맨 허경환이 과거 힘들었던 시절을 털어놨다.

지난 14일 방송된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는 허경환이 출연해 일상을 공개했다.

이날 방송에서 허경환은 자신에게 슬럼프가 찾아왔었다고 고백했다. 시청자들에게 더 큰 웃음을 선사하지 못하게 되자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느낀 그는 당시 운동을 하며 자주 먹던 닭 가슴살에 아

이연복 셰프, 눈 안 보이는 유기견 입양

네티즌 “선한 영향력 감사”

종식 대가 이연복 셰프가 눈이 안 보여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던 유기견을 입양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일제히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난 14일 이연복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 아기 유기견을 데려왔다”며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걱정했는데, 병원 검사 결과 눈은 괜찮을 것 같다고 해 정말 다행이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몸에 기생충들이 많은 것 같다고 해 약물치료를

하며 검사해 보기로 했다”며 “#유기견 #사지도말고 #팔지도말사다”라고 덧붙였다.

그가 입양한 2개월 추정 강아지는 한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하며 입양이 필요한 유기견을 소개하는 SNS 계정을 통해 알려졌다. 두 눈을 감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강아지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 아기 유기견을 데려왔다”며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걱정했는데, 병원 검사 결과 눈은 괜찮을 것 같다고 해 정말 다행이다”고 적혀있었다.

이연복 셰프는 해당 게시글이 올라오자 “안녕하세요 이연복 셰프입니다. 제가 입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라며 댓글로



입양 의사를 전했다. 한편 그의 입양 소식을 알린 글에는 1만명이 넘게 ‘좋아요’를 눌렀다. 네티즌들은 “정말 감사 드린다. 영향력 있는 분의 이런 멋진 모습 최고다” “연희동 캣대디로, 길냥이들도 겨두시는 멋진 분” “유명인의 선택이라서가 아니라, 그 누구의 선택이었어도 너무 감사한 결정이다. 셰프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추운 겨울 참 따뜻하다”며 응원의 댓글을 남겼다.

‘히트맨’ 정준호 “4년만의 영화, 선임이라 지갑 자꾸 열려”

“선후배 교감·제작자간 좋은 분위기 형성 앞장서야”

배우 정준호가 4년만에 새 영화를 찍으며 분위기메이커 노릇을 하느라 지갑을 열게 됐다고 말해 웃음을 줬다.

정준호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정동 한 카페에서 진행된 영화 ‘히트맨’ (감독 최원섭) 관련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오랜만에 영화를 찍었다며 “오래 헤어진 친구를 다시 만난 느낌이다. 익숙했던 현장을 잠깐 떠났다가 TV시스템에 잤었다가 영화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TV와 영화는)연기적인 부분은 비슷하지만, 현장에서의 시스템은 많이 다르다. 이쪽 저쪽 가면 적응이 힘든 점이 있다. 많은 설렘을 갖고 부담감도 많이 있었

고 어느덧 저도 현장 가면 선임자 위치가 돼서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임자 위치는 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 원활하게 이끌어가고 선후배의 교감, 제작자간의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여러 분야의 의견을 잘 조화해 회식을 해서 풀고, 어려운 현실이 있으면 제작자와 얘기에 환경을 바꾸기도 하는 게 선배의 임무”이라며 “현장에 오면 할일이 많아진다. 지갑은 자꾸 열리고 할 일은 많고 지고 쌓이는 영수증, 결제는 계속 올라가고, 그런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정준호는 ‘히트맨’에서 전설의



국정원 악마교관 탁구 역을 맡았다. ‘히트맨’은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 국정원을 탈출한 비밀 프로젝트 방패엔 출신 전설의 암살요원 준이 연재하는 작품마다 실패하자 술집에 자신의 과거가 담긴 웹툰을 올리고, 그로인해 초대박이 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오는 22일 개봉한다.

김응수·박해진·한지은, ‘꼰대인턴’으로 뭉치나

배우 김응수 박해진 한지은이 MBC 새 수목드라마 ‘꼰대인턴’으로 만날지 주목된다.

MBC 관계자는 15일 뉴스1에 “김응수 박해진 한지은이 ‘꼰대인턴’ 출연을 제안 받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세 사람이 출연을 검토 중인 ‘꼰대인턴’ 편성은 확정됐다”며 “오는 5월 수목드라

마로 방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꼰대인턴’은 가까스로 들어간 회사를 이직하게 만들었던 최악의 꼰대 부장을 부하직원으로 맞게 된 남자의 지질하면서 통쾌한 복수극이자, 시니어 인턴의 잔혹한 일터 사수기를 그리는 코믹 오피스물이다.

영화 ‘타짜’ 촬영의 명대사로 최근 전성기를 맞이했던 김응수가

한때 꼰대의 정석이었던 시니어인턴 이만식 역을 맡아 주연으로 활약할 전망이다. 박해진이 마케팅 영업 본부장 팀장 가열찬 역을, 한지은이 인턴 이태리 역을 각각 제안받았다.

한편 ‘꼰대인턴’은 김동욱 문가영 주연의 ‘그 남자의 기억법’ 후속으로 오는 5월 방송된다.

뉴스1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MEGABOX 광주첨단점

| | |
|----|--|
| 1관 | 천문·하늘에 묻는다 |
| 2관 | 닥터 두리틀 |
| 3관 | 스타워즈: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
| 4관 | 백두산 |
| 5관 | 미드웨이 |
| 6관 | 시동 |
| 7관 | 백두산 |
| 8관 | 닥터 두리틀, 스타워즈: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더빙)타발루가와 얼음공주 |
| 9관 | 닥터 두리틀 |

문의전화 1544-007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엠코로 35(쌍암동)

CGV* 광주하남점

| | |
|----|---------------------------------|
| 1관 | 닥터 두리틀, 신비아파트 극장판, 타발루가와 얼음공주 |
| 2관 | 백두산, 천문·하늘에 묻는다, 시동, 눈의여왕4 |
| 3관 | 닥터 두리틀 |
| 4관 | 백두산 |
| 5관 | 닥터 두리틀, 미드웨이, 천문·하늘에 묻는다, 겨울왕국2 |
| 6관 | 신비아파트 극장판 |
| 7관 | 스타워즈-라이브 오브 스카이워커 |

문의전화 1544-11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400번길 30 테라스 56 피크닉몰 2층